

주 간



Keep It Simple and Short

2019학년도 수특영독 W8(1~3)

영어 노베이스에서 100점으로 이르기 위한 영어 공부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단어, 해석(문장 단위), 문풀(지문 단위). 학생들이 영어를 공부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은 바로, 세 번째 요소인 '문풀'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어는 국어, 수학에 비해 문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죠. 단어,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어 문풀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적당한 난이도의 영어 빈칸 지문 하나를, ebs 해석 말고 정성을 들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잘 번역했다고 합시다. 그럼 글을 '이해'하는 데 우리는 한국인이므로, 큰 무리가 없겠죠. 그러면 문제를 푸는 '사고 논리' 자체는, 정말 스무살 지성인을 위한 수준일까요..? 대부분이 그 아래일 겁니다. 그러한 수준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현 절평 영어 체제에서 많아봐야 두 문제고, 이 마저도 절평이기에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은 상황이죠. 다시 말해, 단어를 제대로 알고 이를 활용해 해석이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수준이면 절평 영어 1등급에 거의 근접한다는 얘기입니다.

제발, 본인이 '공부하기 쉽게 느껴지는' 문제 풀이에 집착하지 마시고, 빨라도 6평까지는 단어에 대한 고민, 더 나아가 이를 활용해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하는 고민을 많이, 아주 많이 하세요. 그리고 문풀 논리를 익히는 것은 6평 후부터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고,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 학생이라면 문풀 논리를 익히고 체화하는 건 한 두 달이면 됩니다. 제발, 수학 문제 하나를 두고 오래 고민하듯, 한 문장을 한 지문을 두고 어떻게 '한국말로' 자연스럽게 해석할 것인가 해석을 고민하세요.

그리고 이를, 'EBS 영어'로 하는 겁니다. 기출 영어만큼 지문의 문풀 논리가 좋은 지문이 많은 건 아니지만, EBS 영어 지문도 단어와 해석을 위한 '좋은 영어 지문'임은 맞으니까요. 무엇보다, 고3 내신의 시험 범위이고, 6, 9, 수능에 '똑같은' 지문이 7, 8 개가 나오는데, EBS가 아닌 다른 교재로 영어 공부를 한다는 것은(평가원 기출 제외) 참,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EBS 연계 교재 3권의 1000지문 가까이 되는 영어 지문의 모든 단어와 해석을 공부하면, 절평 영어 1등급에 넘치면 넘쳤지, 부족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평가원 기출로 문풀 논리를 병행하며 체화하고 그냥 100점 맞으세요 ☺

명심하세요. 고정 100, 고정 1이 나오는 친구들 중에, 문법 용어를 모르는 친구들은 많습디다만, '해석'을 시켜보면, 예외 1도 없이, 다 자연스러운 한국말로 곧잘 해석을 합니다.

1. EBS 연계 교재 해당 '강'을 시간을 재고 본다. 본인의 실력과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문제 당 1~2분을 설정하고 본다. 시간을 재고 풀어야 가장 집중을 잘한다. 뇌는.
2. 채점을 한다. 혹, 본인의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 많이 틀린다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문풀의 기준은 평가원 기출.
3. 꼭, 이 자료를 보기 전 지문을 보며 '혼자' 해석을 해본다. 제발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인다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해석이 잘 되는가, 객관적으로 본인을 체크한다. 모르는 단어, 잘 안 되는 해석 부분을 체크한다.
4. 자료의 요약, 단어, 변형을 보며 내용, 어휘, 변형 논리를 이해하도록 한다. 자료에 없으나 추가적으로 모르는 단어는 꼭 네이버나 구글에 물어봐 찾아 적는다.
5. 각 문제 분석 페이지 다음에 있는 해석 공간에서 시간을 재고 해석을 한다. 본인의 실력, 지문의 난이도 및 길이에 따라 한 지문 당 짧게는 5분(1등급)~길게는 10분으로 꼭 시간을 재고 한다. 시간을 재고 해석해야 늘어지지 않고, 집중을 가장 잘한다. 뇌는.
6. 해석을 하다가 10초 정도 고민했으나 모르는 부분, 문장은 '비워두고' 넘어가서 해석을 한다. 우선은 정해진 시간 내에 지문 하나를 다 해석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7. Shean.T의 해석과 비교를 하며 맞추어 보고, 비워둔 부분을 Shean.T 해석과 검색 및 질문을 통해 해결한다. 이 비워둔 부분은 '빨강색' 볼펜으로 채우는 게 좋으며, 그 부분을 본인의 '오답 해석 노트'에 옮겨 적는다. 이게 바로 본인의 비장의 노트.
8. 복습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 주간의 KISS EBS를 끝내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번엔 '구두로' 다시 한 번 지문 해석들을 쭉 해본다. 이러면서 영어 단어, 표현, 문장 구조, 해석 능력이 자꾸 체화가 되는 거다. 한 파트(수특영어 유형편, 주제소재편, 테스트 이렇게 세 개의 파트 정도로 볼 수 있다)가 끝나면 또 처음으로 돌아가 복습 해석!
9. 급격히 향상된 어휘력, 해석력 그리고 EBS 연계의 도움으로 가볍게 1등급을 맞는다.
10. 여러 곳에 감사의 후기를 올려주면 정말 감사하다.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첫번째, ‘순차적으로’부터 살펴보자면,

1. 순차. 영어 한 문장이 있으면, 그 한 문장의 맨 끝을 앞으로 가져오는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소위, 그 유명한 ‘직독직해’를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아래 16학년도 수능 문장을 보시면,

It is likely that age changes begin in different parts of the body at different times and that the rate of annual change varies among various cells, tissues, and organs, as well as from person to person. (15.11.23)

a. 나이 변화는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다른 시기에 시작하며 매년 변화의 속도 또한 사람마다, 그리고 다양한 세포, 조직, 기관에 따라 다양할 가능성이 높다. (X)

b. 가능성이 높다 / 나이 변화가 시작할 / 몸의 다른 부분에서 / 다른 시기에 / 그리고 매년 변화의 속도는 다양할 / 세포, 조직, 기관마다 / 또한 사람들마다. (O)

a의 해석은 사실상 해석이 아니라 ‘번역’이다. 이 일은 번역사가 하는 것이고, ‘독해’를 하는 수험생이 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빠르고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의미 파악’**이다. 따라서 b와 같이 앞에서부터 쪽 가면서, **‘본인이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미 & 구조 단위’**로 묶고,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은, ‘실전적인 해석’이다.

B에서 볼 수 있듯이 포인트는 어떻게 한국어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본인이 영어 단어와 문맥에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면서’ 해석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사를 잘 써야, 단어와 단어, 덩어리와 덩어리가 잘 연결된다.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셔야 하고, 영어 고정 1등급은 해석을 시켜보면 이걸 잘한다.**

‘어디서 끊느냐’ 하는 것에 정답은 없다. 본인이 한 문장이 쪽 한 눈에 들어오고 의미 파악이 된다면 끊을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한 눈에 파악이 된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대충 쪽 가는 것은 킬러 수능 영어 문제를 푸는 데 그리 좋지 않다. 한국어로 ‘하나의 의미 단위’를 이루는 부분이 제일 좋고, 필자는 전치사, 관계사, 접속사 앞에서 주로 끊는다. 참고!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두번째, '자연스럽게'를 살펴보자면,

2. 자연. 어떠한 단어, 혹은 어떠한 의미 덩어리를 제발 본인이 외운 그 사전의 첫번째 뜻으로 마구 넣어 해석하는 것을 지양하자. 물론, 우선 해당 단어의 사전 첫번째 뜻을 외우는 것이 '필수 전제 조건'이기는 하다. 하지만 해석을 할 때에는, 그 외운 뜻을 바탕으로 문맥상 어떻게 자연스럽게 '적용'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전환 과정이 없이 그냥 외운 뜻을 넣기만 하게 되면, 한국어인데 한국어가 아닌 무엇이 되고, 뇌가 어색하게 느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게 된다.

예를 들어, establish라는 단어는 '설립하다'로 외웠을 것이다. 이 '설립하다'라는 뜻이 이 단어의 기본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문맥에 따라 '맞는 한국어'로 바꿔 해석해가야 한다는 것이다. Establish order(질서)라고 했다고 하자. 한국어로, '질서를 설립하다'라는 게 말이 되는가? 설립은 보통 재단, 기관을 설립하지 질서를 설립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와 비슷하면서 '질서'와 어울리는 한국말은? 바로 '질서를 확립하다.' 또한, established experts가 있다고 하자. 직역하면 '설립된 전문가들'인데, 역시나 이건 한국어가 아니다. 하지만, '설립된'을 통해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와 연결시켜 자연스러운 한국어를 떠올린다. '이미 설립된.. 이미 세워졌구나.. 전문가가 이미 설립돼서 자리를 잡았어..' 아, '이미 자리를 잡은' 전문가들이구나. '인정 받는', '저명한'까지 가도 우리가 없고 다 자연스러운 해석이라는 것이다. '쌘! 저명한이라뇨, prominent가 아닌데요?'라는 우매한 생각에서 벗어나 얼른 '이유 있는 자유'를 누리라는 것이다.

해석에 정답은 없다. '어울리는 지 아닌 지'만 있을 뿐.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문장을 보자.

Each year more farmland was devoured to build strip malls and neighborhoods with larger homes. (13.11.43)

매년 더 많은 농경지가 / 게걸스럽게 먹혀진다(?) / 길가 상점들을 짓기 위해 / 그리고 인근에 큰 집들을 짓기 위해

걸리는 부분이 눈에 확 들어온다. 농경지가 게걸스럽게 먹혀진다니.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 우선 기본적으로 'devour'가 '게걸스럽게 먹다'라는 뜻이라는 건 이미 외웠어야 한다. 다음 스텝은 이걸 어떻게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바꾸느냐 하는 것이다. 자 '상황'은 농경지를 상점과 집들로 바꾼다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was devoured를 '바꿨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이 없다. 의미가 명확하게 통하니까. 여기에 devour의 느낌까지 살리자면, '농경지를 갈아 엮다'까지 갈 수 있겠다. 황무지를 논으로 바꾸는 뜻이기에 정확하진 않지만 '개간'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고, 한국어가 좋은 친구들이라면 위의 '바꿨다'는 뜻에서 '전용된다'는 해석도 할 수 있겠다. 정답은 없다. 위와 비슷한 의미로 '본인이' 떠오른 단어를 쓰면 된다. 단,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면 된다. + 한국어로 자연스러우려면 'they, them'을 제발 '그들은, 그들을' 그만하고, 뭘지 파악해서 정확히 한국어로 풀어주도록 하자!

명심하자. 영어는 '언어'이고, '상식'이다. 한국어의 상식에서 움직이자.

문장 해석을 할 때 필자가 강조하는 세 가지 키워드는 바로,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세번째, '단순하게'를 살펴보자면,

3. 단순. 긴 문장은 정말 길다. 그리고 다른 모의평가도 아닌 '수능'을 보게 되면, 난이도가 쉬워도 대의파악(주제, 제목..)부터 한 지문에 몇 줄이 되는 긴 문장이 꼭 있다. 이렇게 긴 문장에서 보통은 지레 겁먹게 되고, 하나 하나 다 해석하려다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더 당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긴 문장일수록, 어떻게 덩어리로 묶어 '핵심 단어'를 기준으로 '단순화'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아래 14학년도 B형(헬영어) 수능 빈칸 문장을 살펴보자.

This intentional error functions as an advance warning system, manned by the self-protection subself, providing individuals with a margin of safety when they are confronted with potentially dangerous approaching objects. (13.11.34)

어렵다. 길어도 긴 편이고, 단어도 만만치가 않다. 굳이 순차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자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조기 경보 체계로서, / 자기 보호 자아를 통해 인간이 사용하는, / 인간에게 약간의 안전을 제공하면서 / 직면했을 때 / 위험하게 다가오는 물체에.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수능 시험장에서 저 문장을 이 정도 수준으로 즉석에서 해석할 수 있는 수험생도 거의 없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오질 않는다. 이 full sentence를 어떻게, 덩어리 별로 핵심 단어를 콕아서, '단순화'할 것인가가 어려운 문장에 대한 '실전 해석'이다. 이에 따라 재구성 해보면,

이 고의적인 오류는 기능한다 / 경고 시스템으로 / 인간이 사용하는 / 안전을 제공하면서 / 위험한 물체에 직면했을 때

'진하게' 처리된 단어가 내용 전달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내가 '단순화'하여 이해해야지 만이 읽고나서 무슨 말인지 기억에 남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저에는, 잘 살펴보면, 역시 각 덩어리를 잇는 '조사'에 핵심으로 걸리는 단어를 고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치, '고의적 오류는 기능한다. 뭐로서(as)? 경고 시스템으로서. 뭐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뭘 제공하면서? 안전을. 언제? 위험할 때. 이런 사고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단순화' 해석은 실전적 해석으로, 본인의 해석력을 늘려야 하는 공부에서는(이 EBS 지문을 통한 해석 공부처럼), 웬만하면 단순화는 정말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보려 연습하자. 역설적으로, 이렇게 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줄 알아야, 다 파악을 하고 뭐가 중요한지 알아서, '단순화'한 해석이 된다.

Shean's KISS EBS

CAUTION

해당 자료의 지문 자체를 제외한 모든 내용
즉, 요약, 변형 포인트, 어휘 정리, 직독직해의 내용은
Shean.T가 직접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 자료의 저작권은 Shean.T에게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

특히,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한 부'만 구매한 뒤
이를 출력하여 다수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사교육이지만 그래도 '선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자제해주시고,
과외 혹은 학원 등에서 다수에게 이 자료를 배포할 경우,
인원수만큼 구입을 하시거나,
sheanlee23@gmail.com으로 사전 연락 바랍니다.

혹 본인이 다니는 학원 등에서 이 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역시,
위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신고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잘 못 먹고, 잘 못 자가면서 만든 창작물을,
단지 전자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해당 자료에 해당하는 저자의 무료 강의를 유튜브에서 공개합니다.
'Shean 영어' 'Shean EBS' 치시면 나오니 '구독'해주세요.
자료와는 별개로 자비를 들여 정말 무료로 공개하는 강의이니,
추가적인 여러 요청을 들어드리는 것은 조금 제한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Shean.T 드림.



For decades, primatologists have reported on **incidents** in which apes and monkeys behaved with apparent **compassion**.

The **pioneering** primatologist Nadezhda Ladygina-Kohts raised a young chimpanzee named Joni in her Moscow home. Joni liked to play on the roof of her house and often refused to come down. Over time, Kohts found that the best way to get Joni to come down was to **appeal to** his emotions. She would pretend to cry, and Joni would immediately rush to her side, look about **suspiciously** for an **offender**, and comfort her by gently touching her face. (삽입 Chimpanzees sometimes appear to help **one another as well**.) Jaki, a seven-year-old chimp living at the Arnhem Zoo, in the Netherlands, observed an older caregiver named Krom trying unsuccessfully to **retrieve** a tire that had been **filled with** water. After Krom gave up in frustration, Jaki went over to the tire, **removed** the other tires that were blocking it, and carried it over to Krom, being careful not to spill any water.

* primatologist: 영장류 동물학자



1. 영장류 학자들은 원숭이들이 '연민'이라는 감정으로 행동하는 여러 사례를 보고함
2. 원숭이 하나가 지붕에서 안 내려오자 사육사가 우는 체 함 → 내려와서 달래줌 우끼끼
3. 인간 뿐만 아니라 같은 종도 도와줌. 한 원숭이가 타이어를 못 옮기고 있자 다가가서 자~알 옮겨줌 ㅎㅎ



1. 변형: 문장 삽입. 삽입 문장 전은, 원숭이가 인간에게 연민을 느껴 행동한 예시, 삽입 문장 후는 동족에게 연민 느껴 행동한 예시로 전환점(transition)이 되는 문장. 이를 as well(또한)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낸 무난 문삽!



1. incident: 사건, 사례
2. compassion: 연민, 동정
3. pioneering: 선구적인
4. appeal to N: ~에 호소하다
5. suspiciously: 의심의 눈초리로
6. offender: 공격자
7. one another: 서로서로
8. retrieve: 회수하다
9. filled with: ~로 가득 찬
10. remove: 제거하다

For decades, primatologists have reported on incidents in which apes and monkeys behaved with apparent compassion. The pioneering primatologist Nadezhda Ladygina-Kohts raised a young chimpanzee named Joni in her Moscow home. Joni liked to play on the roof of her house and often refused to come down. Over time, Kohts found that the best way to get Joni to come down was to appeal to his emotions. She would pretend to cry, and Joni would immediately rush to her side, look about suspiciously for an offender, and comfort her by gently touching her face. Chimpanzees sometimes appear to help one another as well. Jaki, a seven-year-old chimp living at the Arnhem Zoo, in the Netherlands, observed an older caregiver named Krom trying unsuccessfully to retrieve a tire that had been filled with water. After Krom gave up in frustration, Jaki went over to the tire, removed the other tires that were blocking it, and carried it over to Krom, being careful not to spill any water.

* primatologist: 영장류 동물학자

For decades, primatologists have reported on incidents in which apes and monkeys behaved with apparent compassion. The pioneering primatologist Nadezhda Ladygina-Kohts raised a young chimpanzee named Joni in her Moscow home. Joni liked to play on the roof of her house and often refused to come down. Over time, Kohts found that the best way to get Joni to come down was to appeal to his emotions. She would pretend to cry, and Joni would immediately rush to her side, look about suspiciously for an offender, and comfort her by gently touching her face. Chimpanzees sometimes appear to help one another as well. Jaki, a seven-year-old chimp living at the Arnhem Zoo, in the Netherlands, observed an older caregiver named Krom trying unsuccessfully to retrieve a tire that had been filled with water. After Krom gave up in frustration, Jaki went over to the tire, removed the other tires that were blocking it, and carried it over to Krom, being careful not to spill any water.

* primatologist: 영장류 동물학자

수십년 간, 영장류 학자들은 사건들에 대해 보고했다 / 유인원과 원숭이가 분명한 연민의 감정을 가지고 행동한. / 이 이름 복잡한 선구적인 영장류 학자인 Ko는 조니라는 어린 침팬지 한 마리를 키웠다 / 자신의 모스크바 집에서. / 조니는 집 지붕에서 놀기를 좋아했고 / 종종 내려오기를 거부했다. / 시간이 갈수록, / Ko는 알아냈다 / 조니를 내려오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 조니의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라고. / Ko는 우는 척을 하곤 했고, / 조니는 즉시 Ko 곁으로 달려갔다, / 누구 나쁜 사람이 있는지 의심하며 주위를 둘러보고, / Ko를 위로한다 /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 침팬지들은 때때로 서로를 또한 도와주는 것처럼 보인다. / 자키는 네덜란드 A 동물원에 사는 7살 침팬지인데, / 크롬이라는 더 나이 많은 보호자 침팬지가 타이어를 되찾아오려다 실패하는 걸 봤다 / 물로 가득 찬 타이어를. / 크롬이 좌절하며 실패한 후, / 자키는 타이어 쪽으로 가서, / 그걸 막고 있던 다른 타이어들을 제거했고, / 크롬 쪽으로 가지고 갔다, / 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면서.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1강: 빈칸, 2번

In the physical world, friends are people **to** whom we are **attached** by feelings, **affection**, or personal regard. In the world of social networking, however,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rm** friend is much more **vague** and **loosely** applied. For example, an individual who you have just met for the first time at a social gathering might not pass the test of being a friend in the physical world, but increasingly this type of casual connection is more than enough to pass the friendship test in the **virtual** world. Simply knowing a person's face, name, or possible **association** with another "friend" is usually enough for many to enter into an online friendship with an individual. At other times, a simple friend request is **sufficient**, regardless of **familiarity** with the individual or any previous personal connection. **In respect to** online security and privacy, the choices made when **befriending** people in the digital world and the content (i.e., profile information, pictures, status updates, etc.) shared with them should not be **taken lightly** as such choices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real world.



1. 현실 세계(A)에 비해 가상 세계(B)에서는 친구의 개념이 더 넓고 애매함
2. Ex.: 처음 본 사람은 A에서는 친구가 안 되지만 B에서는 가능. 그냥 서로 이름 얼굴만 알아도 B에선 친구!
3. Problem: B에서는 친구 맺거나 정보 공유를 조심해야 함. 안 그럼 A에까지 부정적 영향 미침!



1. 인스타 shean.lee 팔로우 고고고. 마지막 문장 때문에 '흐름' 문제 아쉽게 성립 안 됨 ㅠㅠ



1. attach to N: ~와 연관되다
2. affection: 애정
3. application: 적용
4. term: 용어
5. vague: 모호한
6. loosely: 느슨히, 막연히
7. virtual: 가상의
8. association: 연관(성)
9. sufficient: 충분한
10. familiarity: 친숙함
11. in respect to N: ~에 관하여
12. befriend: ~와 친구가 되다
13. take lightly: 가볍이 받아들이다
14. consequence: 결과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1강: 빈칸, 2번

In the physical world, friends are people to whom we are attached by feelings, affection, or personal regard. In the world of social networking, however, the definition and application of the term friend is much more vague and loosely applied. For example, an individual who you have just met for the first time at a social gathering might not pass the test of being a friend in the physical world, but increasingly this type of casual connection is more than enough to pass the friendship test in the virtual world. Simply knowing a person's face, name, or possible association with another "friend" is usually enough for many to enter into an online friendship with an individual. At other times, a simple friend request is sufficient, regardless of familiarity with the individual or any previous personal connection. In respect to online security and privacy, the choices made when befriending people in the digital world and the content (i.e., profile information, pictures, status updates, etc.) shared with them should not be taken lightly as such choices can have negative consequences in the real world.

물리적 세상에서는, / 친구들은 사람들이다 / 우리가 애정이 생기는 / 감정, 애정 혹은 개인적 존경으로. / 소셜미디어의 세상에서는, 하지만, / 친구라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은 / 더 애매하고 느슨하게 적용된다. / 예를 들어, / 니가 처음으로 방금 만난 사람은 / 사교 모임에서 / 실제 세계에서 친구가 되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일상적 연결은 / 추옹분할 것이다 / 가상 세계에서 친구 테스트를 통과하기에는. / 사람의 얼굴, 이름, 혹은 다른 '친구'와의 잠재적 연관성을 아는 것만으로도 /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하다 / 어떤 사람과 온라인 친구 관계를 형성하기에는. / 다른 때에는, / 단순한 친구 요청이면 충분하다, / 그 사람과의 친함에 관계없이, / 혹은 어떤 이전의 개인적 연관성에 상관 없이. / 온라인 보안과 사생활에 관해서는, / 디지털 세상에서 사람들과 친구가 될 때 내린 선택들과 / 그들과 공유한 내용(요런 것들)은 / 가볍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그러한 선택들이 실제 세상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Gifted children of almost any age show longer **attention spans** — in the things they are interested in at the moment, not necessarily in what others think they should be interested in. Many gifted children spend hours reading, building models, or drawing — “forgetting” their household duties and not even hearing you call their name. Their concentration is **intense**, focused, and all-consuming; they will also notice details that others miss. One 10-year-old boy, who had read the second Harry Potter book four times, proudly announced that he could name all of the **numerous** courses that Harry and his friends studied at their school. In another example, a highly gifted three-year-old boy watched a basketball star make 20 baskets **in a row** on television. This boy **became resolved to** do the same thing, and he stayed with the task for nearly three hours until he finally did it. Even using a child-size hoop, this was quite an **accomplishment** for someone so young. His **determination to stick with** it that long was quite **remarkable**. Persistence is a long-lasting trait of gifted children and adults.

* all-consuming: 마음을 온통 빼앗는 ** hoop: (농구의) 링



1. 재능 있는 아이들의 특징: 집중력이 아주 짧
2. Ex.: 해리포터 집중해서 4번 읽은 친구는 호그와트 코스 다 기억함. 농구 본 아이도 곧잘 따라해서 슛 넣음
3. 재능 있는 아이와 어른의 특징: 끈기 있는 집중!



1. 너무 맞는 얘기라 반박 불가... 수험생은 공부에, Shean.T는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얼마나가 결과를 결정 ☺



1. gifted: 재능 있는
2. attention span: 집중 시간
3. intense: 강렬한
4. numerous: 수많은
5. in a row: 연속으로
6. be resolved to v: ~하도록 결심하다
7. accomplishment: 성취
8. determination: 결심
9. stick with: ~을 계속하다
10. remarkable: 놀라운
11. persistence: 끈기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1강: 빈칸, 3번

Gifted children of almost any age show longer attention spans — in the things they are interested in at the moment, not necessarily in what others think they should be interested in. Many gifted children spend hours reading, building models, or drawing — “forgetting” their household duties and not even hearing you call their name. Their concentration is intense, focused, and all-consuming; they will also notice details that others miss. One 10-year-old boy, who had read the second Harry Potter book four times, proudly announced that he could name all of the numerous courses that Harry and his friends studied at their school. In another example, a highly gifted three-year-old boy watched a basketball star make 20 baskets in a row on television. This boy became resolved to do the same thing, and he stayed with the task for nearly three hours until he finally did it. Even using a child-size hoop, this was quite an accomplishment for someone so young. His determination to stick with it that long was quite remarkable. Persistence is a long-lasting trait of gifted children and adults.

* all-consuming: 마음을 온통 빼앗는 ** hoop: (농구의) 링

어떤 나이든 재능 있는 아이들은 보인다 / 더 긴 집중 시간을 / - 그 순간에 자신들이 흥미 있는 것에, /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흥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 많은 재능 있는 아이들은 몇 시간을 보낸다 / 독서, 레고, 혹은 그리기에 / - 집안일 할일은 “까먹고” / 니가 이름 부르는 것도 듣지 않고. / 아이들의 집중력은 강렬하고, 초점이 딱 있고, 마음을 온통 빼앗는다; /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디테일도 알아챌 것이다. / 해리포터 두번째 시리즈를 4번 읽은 10살 아이는, /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 모든 수많은 코스들 이름을 댈 수 있다 / 해리와 친구들이 학교에서 탐방한. / 또 다른 예시에서, / 매우 재능 있는 3살 아이는 스타 농구 선수가 연속으로 20 골을 넣는 걸 티비로 보았다. / 이 소년은 같은 일을 하리라 결심했고, / 마침내 해낼 때까지 거의 세 시간을 그 일에 매달렸다. / 아이 크기의 링을 사용했더라도, / 이는 꽤나 큰 성취이다 / 그렇게 어린 아이로서는. / 그렇게 오래 그 일에 매달리려는 결심은 / 꽤 놀랍다. / 끈기는 재능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에게 있어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다.

Life has rules and only the foolish person refuses to follow these rules at all. However, sometimes we expand this “rule” approach to life to such a degree that we **get locked into** patterns that are no longer **applicable** to life and our creative juices get **squeezed out**. Therefore, one way to **enhance** our creativity is to **challenge** the rules. In the movie IQ, Walter Matthau played the part of Einstein. Meg Ryan was Einstein’s **niece**. At one point in the movie, Einstein said to his niece, “Question everything!” That’s good advice. Every **advance** in history came from someone who challenged the rules. Columbus discovered America because he challenged the rules of **navigation**. Martin Luther started the Reformation because he challenged the rules of the church. Einstein discovered **the theory of relativity** because he challenged the rules of Newtonian physics. Sometimes creativity arises **out of the awareness** that we do not have to do things in the same way they have always been done.

* the Reformation: 종교 개혁



1. Problem: 삶의 일반적 규칙들에 갇혀 창의성 상실 → Solution: 이러한 규칙들에 반대해야 함
2. Ex.: 아인슈타인은 뉴턴의 규칙에 반대해서, 마틴 루터 킹은 교회에 반대해서 새로운 발견 일궈 냄
3. 창의성이란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



1. 진부염!



1. be locked into: ~에 갇혀 있다, 매여 있다
2. applicable: 적용 가능한
3. squeeze out: 몰아내다
4. enhance: 강화하다
5. challenge(v): 반대하다
6. niece: 조카딸
7. advance: 진보
8. navigation: 항해
9. the theory of relativity: 상대성이론
10. out of awareness: 인식에서

Life has rules and only the foolish person refuses to follow these rules at all. However, sometimes we expand this “rule” approach to life to such a degree that we get locked into patterns that are no longer applicable to life and our creative juices get squeezed out. Therefore, one way to enhance our creativity is to challenge the rules. In the movie IQ, Walter Matthau played the part of Einstein. Meg Ryan was Einstein’s niece. At one point in the movie, Einstein said to his niece, “Question everything!” That’s good advice. Every advance in history came from someone who challenged the rules. Columbus discovered America because he challenged the rules of navigation. Martin Luther started the Reformation because he challenged the rules of the church. Einstein discovered the theory of relativity because he challenged the rules of Newtonian physics. Sometimes creativity arises out of the awareness that we do not have to do things in the same way they have always been done.

* the Reformation: 종교 개혁

삶에는 규칙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만이 이러한 규칙들을 따르기를 아예 거부한다. /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삶에 대한 “규칙” 접근 방식을 확대한다 / 우리가 어떤 패턴에 갇히게 되는 정도까지 / 그래서 삶에 더 이상 적용 가능하지 않은 / 그리고 우리의 창의적인 과즙이 다 짜서 없어지게 되는. / 그러므로, 우리의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 이러한 규칙들에 반대하는 것이다. / IQ라는 영화에서, WM은 아인슈타인 역할을 연기했다. / MR은 아인슈타인의 조카딸이었다. / 영화의 한 장면에서, 아인슈타인은 조카딸에게 말했다. / “모든 것에 의문을 제기해!” / 이건 좋은 조언이다. / 역사의 모든 진보는 왔다 / 규칙들에 반대한 누군가로부터. / 콜럼버스는 미대륙을 발견했다 / 항해의 규칙에 반대했기 때문에. / 마틴 루터 킹은 종교 개혁을 시작했다 / 교회의 규칙들에 반대했기 때문에. /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다 / 뉴턴의 물리학 규칙에 반대했기 때문에. / 때때로 창의력은 인식에서 나온다 / 우리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 그 일이 항상 행해져 왔던.

Parents sometimes try to **justify** a child's bad behavior with the rationale, "Robert was running around with the wrong crowd." The **implication** is that Robert's behavior was influenced by or caused by the other members of the crowd. This may sound good, and it may be a correct **assessment as far as it goes**. But it **leaves out** the fact that Robert was also a **willing**,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member of this crowd, and that he probably influenced the others to about **the same degree** that they influenced him. **Granted**, crowds (e.g., gangs) sometimes do things **collectively** that the individual members may not do by themselves. But **blaming** the crowd for bad choices and **irresponsible** behavior misses the point **entirely**: First, friends, associates, crowds/groups are choices, and second, individuals influence and are influenced by those who **make up** the group. **This** is one very good reason why friends and close **associates** should be chosen carefully, not simply encountered and accepted. Over a period of time, it **matters**. * rationale: 이유

Summary

1. 부모들은 아이가 잘못하면 주변 친구 탓을 하는데, 사실은 당신의 아이도 주변 친구에 악영향 준 걸 모름
2. 즉 개별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 '집단'의 잘못인데, 그렇다고 그 집단을 뭐라 할 수는 없는 일
3. 따라서 애초에 친구를 사귄 때, 집단에 들어갈 때 신중히 해야 함!

KEY Point

1. 우리 애가 제일 잘못 했다고 생각하자!

Vocabulary

1. justify: 정당화하다
2. implication: 함축적 의미
3. assessment: 평가
4. leave out: 생략하다
5. as far as it goes: 어느 정도는
6. willing: 적극적인
7. the same degree: 같은 정도
8. blame: 비난하다
9. irresponsible: 무책임한
10. entirely: 완전히
11. make up: 구성하다
12. associate(n): 동료
13. matter(v): 중요하다

Parents sometimes try to justify a child's bad behavior with the rationale, "Robert was running around with the wrong crowd." The implication is that Robert's behavior was influenced by or caused by the other members of the crowd. This may sound good, and it may be a correct assessment as far as it goes. But it leaves out the fact that Robert was also a willing, participating and contributing member of this crowd, and that he probably influenced the others to about the same degree that they influenced him. Granted, crowds (e.g., gangs) sometimes do things collectively that the individual members may not do by themselves. But blaming the crowd for bad choices and irresponsible behavior misses the point entirely: First, friends, associates, crowds/groups are choices, and second, individuals influence and are influenced by those who make up the group. This is one very good reason why friends and close associates should be chosen carefully, not simply encountered and accepted. Over a period of time, it matters.

* rationale: 이유

부모님들은 때때로 아이의 나쁜 행동을 정당화 하려 한다 / 이런 이유로, / "로버트는 잘못된 무리랑 어울려 다녔어요." / 그 함축된 의미는 바로 / 로버트의 행동이 영향을 받았거나 일어났다는 것이다 / 그 무리의 다른 아이들에 의해. / 이는 좋게 들릴지도 모르고, / 정확한 평가일지도 모른다 / 어느 정도는. / 하지만 이는 사실을 빼먹는다 / 로버트 또한 적극적이고, 참여하고, 기여하는 이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 그리고 로버트도 아마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을 거라는 / 다른 이들이 로버트에게 영향을 준 대략 같은 정도로. / 인정하건대, 무리는 (갱과 같은) 때때로 집단으로 일을 한다 / 개인 일원이 혼자서는 하지 않을. / 하지만 무리를 비난하는 것은 / 나쁜 선택과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 요점을 완전 놓치고 있다: / 우선, 친구, 동료, 무리/집단은 선택적이고, / 둘째로, 개인들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 그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 이는 한 가지 매우 적합한 이유이다 / 왜 친구들과 가까운 동료들이 신중히 선택되어야 하는지, / 단순히 마주치고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는 중요하다.



The principle of **distinctiveness** suggests that we make attributions about people based on whether their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actions **are associated with** specific outcomes **unique to** the situation. Distinctiveness is the **extent** to which things occur only with each other and not with other things. (C For example, if a student, who has a habit of submitting his assignments late, seems well liked by peers and professors but is clearly treated **harshly** by one of the professors, then the student seems to cause a distinctive reaction from this professor.) (B If the professor in question is **consistently** harsh with many other students, then the behavior is not distinctive to the late-assignment student; rather it is low in distinctiveness, and you will tend to consider the professor a harsh person.) (A If, instead, you see this professor being friendly with all students except the student with the late assignments, then the student seems to be unique or distinctive in eliciting this response from the professor. In this case, the professor's behavior is high in distinctiveness and you a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cause **to** the late student having done something to upset this professor.)

* attribution: (사회심리학에서) 귀인(歸因), 행동의 원인 찾기 ** elicit: (반응을) 끌어내다



Summary

1. 특이성이란 어떤 사람의 특정한 특징 및 행동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반응을 가리킴
2. Ex.: 숙제를 늦게 내는 한 학생은 그 과제를 낸 교수에게서만 특정한 반응을 불러 일으킴(특이성이 높다)



KEY Point

1. 변형: 순서. 무난하면서 은근히 괜찮고 그런 그런 순서 문제. C에서 B냐 A냐를 결정할 때, 둘 다 the professor, this professor는 있기 때문에 힌트가 될 수 없고, C에서 특이성이 발생한 경우인데 A에서도 특이성이 발생한 경우이므로 instead로 연결될 수 없다는 점이 관건!



Vocabulary

1. distinctiveness: 특이성
2. be associated with: ~와 연관되다
3. unique to N: ~에 고유한
4. extent: 정도
5. harshly: 가혹하게
6.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7. attribute A to B: A의 원인을 B로 돌리다

The principle of distinctiveness suggests that we make attributions about people based on whether their particular characteristics and actions are associated with specific outcomes unique to the situation. Distinctiveness is the extent to which things occur only with each other and not with other things. For example, if a student, who has a habit of submitting his assignments late, seems well liked by peers and professors but is clearly treated harshly by one of the professors, then the student seems to cause a distinctive reaction from this professor. If the professor in question is consistently harsh with many other students, then the behavior is not distinctive to the late-assignment student; rather it is low in distinctiveness, and you will tend to consider the professor a harsh person. If, instead, you see this professor being friendly with all students except the student with the late assignments, then the student seems to be unique or distinctive in eliciting this response from the professor. In this case, the professor's behavior is high in distinctiveness and you are more likely to attribute the cause to the late student having done something to upset this professor.

* attribution: (사회심리학에서) 귀인(歸因), 행동의 원인 찾기 ** elicit: (반응을) 끌어내다

특이성의 원리는 제안한다 /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 원인을 돌린다고 / 그들의 특정한 특징이나 행동이 구체적인 결과와 연관이 되어있는 지에 기반하여 / 그 상황에 고유한. / 특이성은 정도이다 / 상황이 서로에게서만 발생하는 / 다른 것들이 아니라. /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숙제를 늦게 내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 친구들과 교수님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 교수님 중 한 분에 의해 매몰찬 대접을 받는다면, / 그 학생은 이 교수님으로부터 특이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인다. / 만약 문제의 그 교수님이 계속해서 많은 다른 학생들에게도 가혹하다면, / 그 행동은 그 숙제를 늦게 내는 학생에게 특이한 것이 아니다. / 만약, 대신, 니가 이 교수님을 다른 학생들에게 친근한 것으로 본다면 / 숙제를 늦게 내는 학생을 제외하고, / 그 학생은 그 교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데 유일하고 특이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경우에, / 그 교수님의 행동은 특이성이 높은 것이고 / 너는 그 원인을 늦는 학생에게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 이 교수를 화나게 한 무언가를 했던.

Shean's KISS EBS

수특영독 1강: 빈칸, 7번

Contemporary Western athletes speak in their own terms about time **expansion**. Tennis great Jimmy Connors has described transcendent occasions when his game rose to a level where he felt he'd entered a "zone." At these moments, he recalls, the ball would appear huge as it came over the net and seem **suspended** in slow motion. In this rarified air, Connors felt he had all the time in the world to decide how, when, and where to hit the ball. In truth, of course, his **seeming eternity** lasted only a **fraction of** a second. Basketball chatter is also **laced with mystical-sounding references** to "getting into zones" where time **stands still**. Players describe unexplainable occasions when everyone around them seems to move in slow motion. During these moments they report a feeling of being able to move around, between, and through their **opponents at will**.

* transcendent: 초월적인, 탁월한 ** rarified: 심원한, 고상한



Summary

1. 운동 선수들은 '시간 확장'이라는 경험에 대해 얘기함 ㅎㅎ
2. 테니스 선수도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0.0001초가 마치 영원처럼 느껴짐. 거의 테니스의 왕자...
3. 농구에서도 이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음. 그럼 다 느리게 움직이고 나만 빠르게 움직임



KEY Point

1. 응 무난 무난 대의파악~~



Vocabulary

1. contemporary: 현대의
2. expansion: 확장
3. suspend: 중지하다
4. seeming: 겉으로 보이는
5. eternity: 영원함
6. a fraction of: 극히 일부의
7. laced with: ~로 치장된
8. reference: 언급, 참조
9. mystical-sounding: 신기하게 들리는
10. stand still: 정지하다
11. opponent: 상대방
12. at will: 맘대로

Contemporary Western athletes speak in their own terms about time expansion. Tennis great Jimmy Connors has described transcendent occasions when his game rose to a level where he felt he'd entered a "zone." At these moments, he recalls, the ball would appear huge as it came over the net and seem suspended in slow motion. In this rarified air, Connors felt he had all the time in the world to decide how, when, and where to hit the ball. In truth, of course, his seeming eternity lasted only a fraction of a second. Basketball chatter is also laced with mystical-sounding references to "getting into zones" where time stands still. Players describe unexplainable occasions when everyone around them seems to move in slow motion. During these moments they report a feeling of being able to move around, between, and through their opponents at will.

* transcendent: 초월적인, 탁월한 ** rarified: 심원한, 고상한

현대의 서양 운동선수들은 자신들의 관점에서 말한다 / 시간 확장에 대해. / 테니스의 왕자(ㅋㅋ) J C는 초월적인 상황을 묘사하였다 / 그의 경기가 수준으로 올라간 / 자신이 어떤 "영역"에 들어갔다고 느낀. / 이러한 순간에, 그가 회상하기를, / 공은 거대하게 보이곤 했다 / 네트를 넘어오면서 / 그리고 느린 동작으로 중지된 것처럼 보였다. / 이런 심원한 분위기 속에서, / C는 세상의 모든 시간을 가진 듯 느꼈다 / 어떻게, 언제, 어디서 그 공을 칠 지 결정하는. / 사실은 당연히, 그의 걸보이는 영원함은 찰나의 순간만 지속되었다. / 농구 이야기도 꾸며진다 / 신비롭게 들리는 언급들로 / "영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 그 영역에서 시간은 정지한 상태로 있다. / 선수들은 설명 불가능한 상황들을 묘사한다 / 그들 주위의 모두가 느린 동작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 이러한 순간에 이들은 마음대로 상대방 사이 사이를 마구 마구 헤집고 돌아다닐 수 있다.

Food is a common, though certainly not **exclusive**, **vehicle** for boycotts. There are both **pragmatic**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is, reflecting the fact that food is both a biological **necessity** and a powerful cultural symbol. Food, of course, is a basic human survival need, but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re also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Food carries social, emotional, and spiritual meanings and **embodies** complex ideas about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justice, and **ethics**. The way in which food is marketed can either **affirm** or conflict with such ideas and values. Pragmatically, food is a high-volume, often perishable **commodity** that typically requires high turnover times on the retail market. Disruptions to this **supply-and-demand** chain, and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business, are felt very quickly. Food boycotts thus have both practical and symbolic value.

* perishable: 상하기 쉬운 ** turnover: (상품·자금의) 회전(율)



1. 음식은 불매운동의 주요 수단인데, 이는 음식이 실용적(A), 문화적(B) 의미 둘 다 지니기 때문
2. 기업의 식품이 문화적 가치와 상충함 → 불매운동을 통해 음식의 수요 공급이 방해되면 그 효과 짱짱맨
3. 음식 불매운동은 따라서 실용적 상징적(B)의미 둘 다 지님 ^^



1. ㄱ 틀을 뺀 하다가 아쉬운 지문 구조 ☺



1. exclusive: 독점적인 2. vehicle: 수단 3. pragmatic: 실용적인 4. necessity: 필요, 필수품
5. distribution: 분배, 유통 6. consumption: 소비 7. embody: 구현하다 8. ethics: 윤리
9. affirm: 확언하다 10. commodity: 상품 11. supply-and-demand: 수요공급의 12. consequence: 결과

Food is a common, though certainly not exclusive, vehicle for boycotts. There are both pragmatic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is, reflecting the fact that food is both a biological necessity and a powerful cultural symbol. Food, of course, is a basic human survival need, but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re also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Food carries social, emotional, and spiritual meanings and embodies complex ideas about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justice, and ethics. The way in which food is marketed can either affirm or conflict with such ideas and values. Pragmatically, food is a high-volume, often perishable commodity that typically requires high turnover times on the retail market. Disruptions to this supply-and-demand chain, and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business, are felt very quickly. Food boycotts thus have both practical and symbolic value.

* perishable: 상하기 쉬운 ** turnover: (상품·자금의) 회전(율)

Food is a common, though certainly not exclusive, vehicle for boycotts. There are both pragmatic and cultural factors that contribute to this, reflecting the fact that food is both a biological necessity and a powerful cultural symbol. Food, of course, is a basic human survival need, but food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are also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activities. Food carries social, emotional, and spiritual meanings and embodies complex ideas about individual and group identity, justice, and ethics. The way in which food is marketed can either affirm or conflict with such ideas and values. Pragmatically, food is a high-volume, often perishable commodity that typically requires high turnover times on the retail market. Disruptions to this supply-and-demand chain, and the economic consequences for business, are felt very quickly. Food boycotts thus have both practical and symbolic value.

* perishable: 상하기 쉬운 ** turnover: (상품·자금의) 회전(율)

음식은 흔한, 분명 유일하진 않지만, 불매 운동 수단이다. / 실용적이고 문화적인 요인이 있다 / 이에 기여하는, / 사실을 반영하면서 / 음식은 생물학적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강력한 문화 상징이라는. / 음식은 당연히, / 기본적인 인간 생존 욕구이다, / 하지만 식량 생산, 분배, 소비는 또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문화적인 활동이다. / 음식은 사회적, 정서적 그리고 정신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 복잡한 생각을 구체화 한다 /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 정의 그리고 윤리에 대한. / 음식이 시장에 내놓아지는 방식은 부합하거나 상충할 수 있다 / 그러한 생각 및 가치와. / 실용적으로 보자면, 음식은 부피가 큰, 종종 상하기 쉬운 상품이다 / 보통 높은 회전율을 요구하는 / 소매 시장에서. / 이러한 수요 공급 사슬에 대한 방해, /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경제적 결과는, / 매우 빠르게 감지된다. / 음식 불매 운동은 따라서 실용적이고 상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